

- 창조적 리더 양성의 요람

# 제4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 AFP

AFP(*Ad Fontes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제4기 AFP과정을 열며

지금 우리는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에 매몰되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여 년 전의 IMF 경제 위기와 최근의 절박한 세계금융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생존과 소유, 욕망에 집착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물질적 가치에 초연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질문명의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가진 대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여러 매체의 보도 내용이 대학별 취업률 비교, SCI 논문발표수, 세계대학평가순위, CEO배출능력 순위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이러한 기능주의에 압도되어 당장의 ‘효용성’과 수치 위주의 ‘수월성’ 추구를 지상 명령으로 받든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편협한 시각의 명령에 놀라 학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간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학’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본’과 ‘물질’의 역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은 인류 역사 속의 언어, 문학, 예술 등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이해하고, 인간사회의 제반 현상 및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읽고, 생각하고, 대화하며, 사물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인문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 삶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에,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문사철(文史哲)의 영역 외에도 오늘날 주목되고 있는 과학, 기술, 경제, 경영 등의 새로운 문화 요소들도 이제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 지성의 진수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시는 목적으로 AFP 과정에 지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인문학이 곁절이의 얇은 맛이 아닌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의 맛을 추구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은 당장의 효용이나 물질적 가치만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아울러 정신적 가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4기 AFP 원우들은 앞으로 18주 동안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인류문화의 정수(精髓)를 접하실 것이며, 삶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인문정신의 안내로 우주와 인간 사회의 깊은 단면과 대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학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인문 서적의 향기로운 행간 속에서 느끼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문학과의 조우가 여러분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와 인문학이 상생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하게 된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개요

## 교육목표

우리 사회 각계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조정신과 윤리정신, 글로벌 마인드 등 인문학적 지식의 고양을 통하여 최고의 지도자로 발전하도록 한다.

## 교과과정: AFP 과정 5대 교육 포인트

- 역사의식 함양과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 문화예술의 이해와 '풍요로운 삶' 모색
- '삶의 내면'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세계화시대의 다문화 탐방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문화변동 이해

##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수강생 추천의 글



AFP 2기 김낙희 제일기획 사장

“창의력과 특특 튀는 아이디어는 경영에서 생명이다. 경영 실무에 몰입하다 보면 외부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는데, 이 특강을 들으면서 인문학 분야에 대한 맛을 느끼고 있다.”



AFP 3기 이건영 빙그레 사장

“인문학을 배우는 경영자들이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CEO들이 왜 갑자기 저럴까 의아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과 문화, 문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비즈니스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절감한다.”



AFP 3기 이낙영 SPP조선(주) 회장

“지금과 돌이켜 보면 인문학은 비실용적이라고 느낀 나의 편견은 오만에서 나온 듯 싶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이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도 인문학의 부재였다는 생각이 듈다.”



AFP 2기 이화경 온미디어 사장

“인문학이 무엇일까, 영화가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앞으로도 인문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을 것이다.”



AFP 1기 이철우 롯데쇼핑(주) 사장

“인간의 소비욕구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하고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선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바로 그 지혜가 인문학에 담겨 있다.”

# 제4기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프로그램

3월 3일(화)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18:30-19:30 입학식 및 원우회 구성 19:30-21:00 만찬
3월 10일(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9층 _ 서울대학병원 건강센터 내 파트너스 라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의 과거와 미래</b> _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li></ul>
3월 17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한국문화과 한국인</b> _ 권영민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li><li>● <b>우리역사와 기록문화</b> _ 허성도 (서울대 중문학과 교수)</li></ul>
3월 24일(화)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부부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퇴계와 율곡</b> _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li><li>● <b>조선 건축의 이해</b> _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li></ul>
3월 28일(토) 3월 29일(일)	<b>워크숍</b> 국내수련회 : 유교 문화 탐방 / 1박2일(부부동반) <b>현장지도</b>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3월 31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한중록』을 통해 본 조선 궁중사</b> _ 정병설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li><li>● <b>사각형 건강</b> _ 성명훈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원장)</li></ul>
4월 7일(화)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 부부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서울대학교 규장각 방문</b></li><li>● <b>한국전통음악의 미</b> &lt;시범 연주단 동반&gt; _ 황준연 (서울대 국악과 교수)</li></ul>
4월 14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현대미술의 이해</b> _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li><li>● <b>동북아 불교의 믿음, 믿음, 깨침</b> _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li></ul>
4월 21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대 몽골의 세계</b> _ 김호동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li></ul>
4월 28일(화)	용산국립박물관(부부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불교미술의 특징</b> _ 이주형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li><li>● <b>동아시아 도자기를 통해 본 예술</b> _ 윤용이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li></ul>

4월 30일(목)	워크숍 해외문화탐방: 박지원과 열하일기 / 3박4일 중국 북경-승덕(열하/피서산장)-사마대장성 코스
5월 3일(일)	현장지도 이주형교수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 김명호교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5월 12일(화)	● 『햄릿』을 통해 본 인생 _ 변창구 (서울대 인문대학장/영문학과 교수)
5월 19일(화)	● 대항해시대 _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세르반테스와 스페인 _ 김춘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5월 26일(화)	● 고테와 독일 _ 전영애 (서울대 독문학과 교수) ● 프랑스 시 속에 나타난 자연 _ 이건우 (서울대 불문학과 교수)
6월 2일(화)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 무궁화홀(1, 2, 3, 4기 합동) ● 금융위기의 역사 _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
6월 9일(화)	● 칸트철학과 현대이성 _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 예술의 이해 _ 김진엽 (서울대 미학과 교수)
6월 16일(화)	예술의 전당 오페라관 (3, 4기 합동: 부부동반) ● 오페라 - 최고의 지위에서 군림한 예술 _ 박종호(신경정신과 의사)
6월 23일(화)	● 나를 바꾸는 심리학 _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예술의 탄생 _ 이선복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
6월 30일(화)	● 『길가매쉬 서사시』를 통해 본 종교와 문명의 기원 _ 배철현(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7월 7일(화)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 19:00-19:50 수료식 및 시상식 19:50-21:00 만찬

# 수업 안내

## ● 교육기간

2009년 3월 3일(화)~7월 7일(화) / 총 18주

##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00~10:00 (1일 2강좌)  
국내 워크숍(1박2일) 1회, 국외 워크숍(3박4일) 1회

## ● 교육장소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구 스타타워) 39층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내 파트너스 라운지

Tel. 02-2112-4555



# 문의처

전화	02-880-2570(인문대학 AFP 사무국)
팩스	02-871-0064
Homepage	<a href="http://humanities.snu.ac.kr">http://humanities.snu.ac.kr</a> → 〈공개강좌〉 참고
주소	우)151-74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7동 112호 인문학공개강좌 사무국

# 입학 안내

## 모집인원

40명 내외

## 입학자격

- 공사기업체 CEO(회장·사장·임원)
- 정부 고위공무원 / 사법부 판검사 / 국회의원 / 장성급 장교
- 교수 / 금융인 / 언론인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사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

※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 부부동반 지원 가능

## 이수요건

- 출석 3분의 2 이상 / 기말보고서(에세이)

## 원서교부 및 접수

2009년 1월 5일(월) – 1월 13일(화)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통
- 재직증명서(재직자에 한함) 1통
- 사진 2매(4×5 칼라사진: 사진 1매는 지원서 부착용)
- 회사 및 기관 소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09년 1월 19일(월) – 1월 20일(화) 개별 통지

## 등록기간

2009년 1월 21일(수) – 1월 23일(금) (수강료 등은 추후 통지함)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방문접수 및 이메일 / 우편 접수 가능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 공개강좌 사무국(7동 112호)
- 이메일 : snuafp@snu.ac.kr (AFP 사무국)
- Homepage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http://humanities.snu.ac.kr>

## 아드 폰테스(Ad Fontes)

“원천으로”라는 라틴어 표현.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를 이끈  
에라스무스가 주창한 구호

에라스무스(1466-1536)





●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만대루(晩對樓)  
- 조선시대 자연주의 건축의 격조(格調)



서울대학교 인문대학